



### 창세전의 삼위일체의 협약

창세전에 삼위일체의 협약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앙 생활에서 무엇에 필요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의 협약은 구원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창세전의 예정과 선택으로 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성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창세전의 삼위일체의 협약에 대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번에 이해하려 하시지 말고 긴시간 목상을 하시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의 삼위일체 의 협약을 지시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말이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아무도 없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삼위일체간에 말씀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당신으로 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신적 기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전의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공부에 들어 가기전에 아주 중요한 용어에 대해

1. **전제(Presupposition)**를 하고 들어 갈 것이 있습니다.

#### 1. 영생(Eternal life)와 불사성(Immortality)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주 안에 피조물은 모두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생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증보자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 :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음에 불사성(Immortality)은 육신의 불사성을 말하는 것으로, 타락하기 전의 아담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불사성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처해 있던 자연적 상태입니다. 이 불사성은 자연적 상태이지만  
이것은 고정됨이 없이 불순종으로 상실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타락한 것은 바로 이 상태에서 타락하여 Immortality 가 Mortality 로 되었습니다.

영생과 불사성의 차이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받고, 몸이 다시 사는 불사성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시 받습니다.

요한복음 6 :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 2. 타락은 예지(Foreknowledge)의 대상이며, 예정(Predestination)의 대상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은 구원으로의 예정이며, 유기는 지옥으로의 예정이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선택이 구원으로의 예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타락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예정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타락이라면, 타락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됩니다.

또 타락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기의 외아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일종의 Frame 이 되어, 하나님을 우습광스러운 광대로 만들게 됩니다.

또 유기된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유기된 것이므로 하나님을 전횡적인 독재자로 만듭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예정의 대상이 아니고, 예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아브가 타락하실 것을 예지하셨지만, 예정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예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자유 동작자들이 행할 일을 미리 예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생기지 않은  
일도 예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죄인 가운데 선택을 포함하고 있지만, 선택은 영생을 주기 위한 선택이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사도행전 13 :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서 1 :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 II. 창세전의 선택과 타락전 선택설

에베소서 1 :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4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에베소서 1 :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타락전 선택설(Suprarapsarianism)과 구별해야 합니다.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것을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죄인들 중에 얼마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논리 하에서 타락전  
선택설을 취했습니다.

타락전 선택은 타락을 전제로 한 구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선택설적 이론을 따르면, 타락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 됩니다. 선택설이 이렇게 될 경우, 타락이 작정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타락이 예지의 대상이거나 간에, 아담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갖게  
할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선 사람의 타락이 필요하다. 또 타락한 인간들의 속죄를  
위해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짜맞추어진 하나의 frame 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구원을 위한 선택이라 하는 것은 선택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선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3 :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서 1 :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을 구원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뿐더러 성경적도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인들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것이 되지만, 이렇게

말할 때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유기된 자들이 되어,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죄인들 중에 얼마를 선택하였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창세전에 선택은 영생을 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유기된 자는 일차적으로 영생에서 제외된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유기된 것으로 나타나 유기되었기 하나님의 존엄에 폐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9 : 11 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즉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죄를 짓거나 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담에게 거슬러 올라가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담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죄를 짓거나 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담의 선택은 타락과 연관이 없습니다.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에베소서 1 : 4 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는 계획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도 취소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계속됩니다. 선택된 그의 자손도 함께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 : 7 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유기된 자는 영생의 선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영생의 선물을 못받았다는 것이고, 둘째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담의 타락안에서, 자기의 행위에 의한 죄로 인해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목적은 선택된 백성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며, 선택의 대상은 죄인만이 아니고, 타락 하기전의 아담과 타락 후의 아담, 타락한 그의 모든 후손들 중에서 피택된 자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만이 다음과 같은 오비판 피할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해롤드부라운은, “베자의 타락전 선택설을 근거로 하여 정통의 다른 면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은 이런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만 의존하고 구속자의 인격과 사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도 그의 신성을 공적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의 정통이 루터파와 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것보다 정통 칼빈주의자들이 유니테리안 주의로 쉽게 옮겨 갈 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한 듯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르트도 언약론적 선택설에 대해 비슷한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너무 강조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두동강이를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타락전 선택설은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여 선택론을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 III. 그러면 삼위일체 안에서 창조전의 협약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성령 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영원전에 삼위일체 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 1. 예수님 안에서의 창세전의 선택에 대해

에베소서 1 :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서는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창세전의 선택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도행전 13 :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입니다.

에베소서 1 :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지만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하였지만 영생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1 :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 2. 영생의 약속에 대하여

디도서 1:2 에서

디도서 1 : 2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2 In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that cannot lie, promised **before the world began**;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그의 외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약속은 천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있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 나기도 전에 약속되었고, 이 영생은 성부로 부터 영원히 발생하는 성자 예수님께 벌써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갖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 3.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한 작정은

디모데후서 1 : 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기록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영생을 성자 예수님께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대치해도 의미가 바꾸지 않을  
말은 무엇인가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심이라

이 구절과 이어져서

요한복음 3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